

**The Church History of
Korea**
한국교회사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초기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

■ 한국에서 지금 종교는, 성서의 지식, 하나님의 말씀, 바로 그것이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라는,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

- John Ross, 1884.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■ 중국에서 입교한 ‘이름 없는 사람들’

- 미국인에 의해 시작된 선교와 한국인의 손에 의한 자발적 선교
- 1864년 상해에서의 최초의 세례인 3명
 - 조셉 에드킨스(런던 선교회)의 서간
 - 조선 공자의 관가에서 일하는 사람들
 - 토마스 순교 2년 만 전
- 미국 선교사 입국 20년 전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■ 이수정

- 1882년 임오군란으로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행
- 쓰다 센(일본 기독교 지도자)과 친교
- 로케즈쵸 교회에서 야스가와 가다치 목사에게 세례
- 일 주재 장로교 선교사 조지 녹스
 - 감리교 선교사 맥레이와 접촉
 - 성경 연구에 관심
- ‘유창한 일본어와 정확한 설교, 그리고 감탄할 만한 그의 예술적 시’로 이미 알려진 인물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자기 신앙 근거를 요한복음 14장으로 소개

“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, 사랑함과 측은함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…
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깊음이 있고 심히 달도다.
 그 몸통은 소나무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지 아니하느니라.”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한글 성경 번역
 - 일본성서공회 총무 헨리 루미스 목사, 복음서 한글 번역 의뢰
 - <현토 한한 신약성서>(1884)
 - 복음서와 사도행전
 - <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> 1천부
 - 언더우드에 의해 수정 간행 (1894)
- 1886년 5월 귀국, 처형
- 만주에서 입교한 증하류 계급의 서상륜과 비교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권서

■ 서상륜의 권서행로

- 1880년 만주 목단에서의 문서선교
 - 존 매킨타이어와 존 로스 활동
- 존 로스의 동역자
 - 서상륜, 이응찬, 김진기, 백홍준
 - 성서 번역 사역 (1875)
 - 목판 인쇄
 - <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>
 - <예수성교 요안내복음전서>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“이 ‘권서인’ 서상륜은 개척교회 신에 입교한 최초의 한국인 개종자입니다. 그는 나와 함께 몇 년 전에 누가복음은 한국말로 번역하였고, 번역이 끝나자마자 나에게 세례를 받겠노라 말했습니다. ...서씨는 3개월간 권서행로에 나섰습니다.”

- <테자행적> <예수성교전서 말코복음> (1883년)
- <예수성교전서 마태복음> (1884년)
- > 1만 5천 부
- cf. 조선의 개국, 1882년
- 서상륜, 남만주 지역, 서울에 이르는 매서 사역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◆ 서상륜의 솔내 사역

- 가족들과 정착
- 로스가 선적한 성서 6천권 수령
- 최초의 예배당, 솔내 건립.
- 50/58 세대 가구 입교
- 미국 선교사 사역의 밑거름
 - 언더우드의 공식 세례 결실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개신교 선교의 특징, 성서
 - 한국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은 압도적으로 성서 전파와 밀접하게 연결
 - 칼 귀츨라프나 로버트 토마스 역시 성서 전파와 연결
 - 로마 가톨릭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길
 - “신약성서와 복음서를 보더니 그것이 자기들 종교에서 쓰는 책과 같더라…
 - …고 하면서 알아보더라” - 윌리엄슨
 - 성사와 교리에 치중된 가톨릭 선교
 - 성서의 보급과 권서 사역, 신앙의 성서적 기초 의식화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성서를 함께 읽어가는 사경회
- 한국교회 = ‘성서의 교회’
 - “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널리 퍼져
 - … 한국인은 성서를 그들 생활 심장부에 가져다 놓고 있다.”(국제 선교리뷰, 1954)
- 한국의 1890년대 성서 보급량
 - “중국에서 50년에 걸쳐 보급했던 것을 한국에서는 10년 안에 보급했다…”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- 성서 번역 사업의 계보
 - 국외 - 만주: 존 로스의 번역, 1875- 1889.
 - 일본: 이수정의 번역, 1883-1885
 - 국내 - 준비 단계: 개인과 각 위원회 번역, 1887-1893
 - 번역연합위원회
 - 번역 사업을 위한 조직, 1893-1896
 - 사업의 간소화, 1897-1902
 - 사업의 재조직, 1902-1906

The Church History of Korea

■ 개신교 선교 특질로서의 성례

-- 세례

-- 1885년 이전에도 집행 됨

-- 1886년 7월 11일 언더우드, 노도사(노춘경)세례

6월 24일 아펜젤러, 배재학당 학생 2인

-- 1889년 4월 27일, '요단강세례'

언더우드 의주 방문시 33인 세례

-- 성찬

-- 1885년 10월 11일 최초 거행 (외국인 대상)

-- 1887년 크리스마스 언더우드 사택에서 7인
